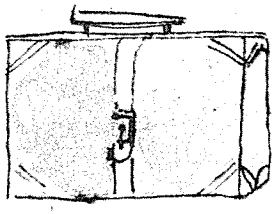
노이로제와 現代人



石 在 鎬
중앙의대 정신과교수·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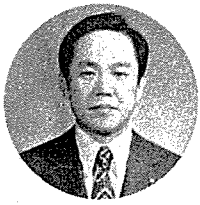
현대인이란 현대적인 교양을 갖고 현대적 생활을 하며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라고 칭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이로제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특히 내적이며 심리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이겨내려는 데서 오는 반응을 말한다. 그러면 왜 노이로제가 현대인에게 유달리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자.

현대인에게 노이로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 하였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현대인에게는 과거 어느 때 사람들 보다 더 내적이며 심리적인 문제 즉 갈등을 많이 갖게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첫째 현대인은 정신적으로 고독한 것이다. 현대의 기계 및 물질문명의 혜택으로 현대식 생활 즉 좋은 양옥집에 평안한 승용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즉 물질적인 풍요속에 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의 참의의를 상실하며 본래적인 「나」가 아닌 비본래적인 「나」-많은 자본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참의 「나」자신 보다는 남에게 더 필요한 잘 포장된 상품화로서의 「나」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보다 많은 생산만을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하다 보니 「나」는 물질적 풍요와 군상속에서도 외롭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대자본이란 톱니바퀴속에 아무 철학도 없이 매달려 끌려만 가고있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둘째 현대적 교양을 갖고 현대식의 생활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의 교양 역시 정신적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삼강오륜을 지키는 것이 미덕인줄 알고 살아오던 우리들 부모의 교양보다는 힘이 세고 생산을 많이 하는 젊은 아들의 투쟁을 더 알아주는 서구식 교양사이에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것 이다. 할아버지는 갑돌이 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착하고 인자한 태도로 공



손히 다녀라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남이 한차례 치면 두차례 쳐야 한다고 하며 당수도장엘 가라고 한다.

어떤때는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고는 또 어떤때는 요사이 선생들이 더 나쁘다고 자녀가 듣는데 욕을 퍼 붓는다. 정말로 현대인의 교양은 로켓트를 타고 달나라에 여정을 할줄 아는지 또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자아를 가다듬어 영원한 자신 즉 내적인 평안을 얻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을 할수 없다. 즉 가치체계의 혼란속에 현대인의 고민이 또한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은 기계 물질문명으로 부터 소외감과 가치체계의 혼란속에서 갈등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혼란속에 외적인 충족에만 의존하고 있고 내적인 평화를 잃고 있는 현대인들은 항상 불안정하며 조그만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쉽게 권태를 느끼게 되며 사소한 실패에 좌절을 느끼며 건전하고 인간적인 대인관계를 유지 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일삼게 되어 더욱 더 악순환 되어 인간관계성의 유지가 곤란케 되며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에서 기인되는 불안과 갈등이 모든 노이로제의 력동적인 공통분모이며 이와 같은 불안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힘에 겨울때 노이로제적인 경향으로 드디어는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인은 누구나가 다 불안하다.

그러나 개인의 양적인 차이 때문에 노이로제 혹은 노이로제 경향으로 되는 것이지 나는 건강인이고 너는 노이로제라는 식의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복잡다단한 사회환경에 적응해 가려고 몸부림치는것 보다는 노이로제적 이라도 되는것이 편할지도 모르는 아이러니도 현대인에게는 있을법한 일이다.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여. 외적인 생활의 욕구란 충족되어 갈수록 더욱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데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